

GIST, 영암군과 인재 양성 및 신산업 육성 위한 MoU 체결

- E-모빌리티, 인공지능(AI), 미래전략기술 분야 -

- 미래교육 혁신, 첨단 과학기술 활용, 지역 신산업 육성, 연계사업 발굴, 인재 양성 등 5개 분야 협력하기로... 지역과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발판 마련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영암군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계획에도 힘 모으기로



▲ 3월 19일(화) 영암군청 낭산실에서 GIST와 전남 영암군이 E-모빌리티, 인공지능(AI), 미래전략기술 분야의 전문 인재양성 및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남 영암군 우승희 군수, GIST 임기철 총장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전라남도 영암군(우승희 군수)과 E-모빌리티, 인공지능(AI), 미래전략기술 분야의 전문 인재양성 및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3월 19일(화) GIST 임기철 총장, 정용화 대외부총장, 김재관 대외협력처장과 영암군 우승희 군수, 민일기 부군수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군청 낭산실에서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총 5분야 ▲**미래교육 혁신**: 디지털 기반 교육 등 다양한 특구 전략을 통한 지역 교육 혁신 체계 구축 ▲**첨단 과학기술 활용**: E-모빌리티 및 인공지능(AI) 분야 등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공동연구 수행 ▲**지역 신산업 육성**: 차세대 에너지 산업, 친환경 조선산업, 농생명 첨단산업 등 지역 신산업 육성 ▲**연계사업 발굴**: 정부 연계사업 발굴 및 선정을 위한 공동 노력 ▲**인재 양성**: GIST 기술경영 아카데미(GTMBA) 교육과정 개설 협력 및 장학생 선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는 **영암군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 시간을 갖고, ▲수요지 인근에서의 전력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전문인력 양성과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대전환 선도도시’**를 목표로 GIST와 영암군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 3월 19일(화) 영암군청 낭산실에서 GIST와 전라남도 영암군이 E-모빌리티, 인공지능(AI), 미래전략기술 분야의 전문 인재양성 및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임기철 GIST 총장은 “앞으로 영암군의 e-모빌리티, 인공지능(AI), 미래전략기술 분야 산업의 발전과 인재양성, 실증을 통한 지역 신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면서, “영암군의 주력산업인 e모빌리티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여 지역과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발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차세대 에너지산업과 친환경조선산업, 농생명첨단산업 등 지역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며, “과학기술인재 양성의 요람인 GIST와의 협약 체결은 정부연계사업 발굴에도 새로운 탄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